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영성 제목 : 신령한 사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1-7)

신령한 것이란 무엇일까?

-마법이나 요술인가?

-영적인 어떤 현상을 상상하는가?(천사의 등장? 아니면 귀신이나 요괴와 같은 무서운 존재가 내 곁에 몰래 있다는 상상? 공포영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기이한 현상을 말하는가?

-아니면,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현재 내 생각을 독심술을 하는 것처럼 꿰뚫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인가?

-또는 나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뭔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뭔가에 뒤집어 씌여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가?

-계시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태몽을 꾸다거나, 불길한 느낌이나, 어떤 기복

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덩달아 행하게 되는 어떤 비과학적인 행동이나 미신적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은 아직 정확하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해들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이해들이다. (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5% 정도의 이해에 불과하다는 뜻)

신령한 것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현상이나 경험이다.

오직 하나님만 신령하신 분이시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모든 영들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자, 천사를 말한다.

천사에게서 파생되었지만, 더 이상 천사라고 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마귀와 마귀의 줄개 귀신들이다. 이들은 신령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는 척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능력도, 생각도, 질도 현저하게 부족한 존재들이다.

즉, 신령한 현상이나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대 인격은 아니다. 굳이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인격대 신격인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격을 인격이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격(位格;divinity)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는 위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각 사람의 인격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3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4차원적인 존재인 천사나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신격이라는 것도 인격적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격에서 인격적인 부분, 즉 신격의 일부분(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역이 신격에서 몇 퍼센트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에 속하는 인격적인

부분만큼만 우리는 경험되어질 뿐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과학을 초월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현상들도 사실은 과학을 초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오직 하나님만 과학과 3차원적인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과학을 초월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인격으로 수용하거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신격도 유일무이하게 삼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로 한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은 인격과 신격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 주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는 하지만, 모든 천사는 하나님과는 별개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3차원적인 공간 안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차원적인 현상이 신령한 것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초월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비쳐질 뿐이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것들은 상식적인 것들이고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인격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신격에 포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으며 대단히 쉽고 마땅하며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런 신령한 가능성들을 악용하는 마귀에게 있다. 마귀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기능들을 이용한다는 점이 골치 아픈 것이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속여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는 않된다고 강조

하는 것이다.

1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적인 것에 대한 성향도 있고, 또 마귀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노략의 대상
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밥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귀가 함부로 할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들을 기
본적으로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사람들을 노략할 수 없
는데, 딱 하나 유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무당이 되는 길만 해도 그렇다. 마귀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를 매번 행하는 셈이고, 무당이 되는 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딱 한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와
거짓말과 협박과 유혹 끝에 사람이 무당이 된다. 마귀로서도 한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 볼 수 있다.

사람 편에서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무당이 되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가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하였다는 것
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하나님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보다 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
신 것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원래의 사람과 하나님과
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놓으셨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그런 의
미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인 신령한 사건이다.

그 효력은 천지창조의 효력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 하다고
해도 부족한 표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신령한 경험은 전도로 인

한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마귀가 가지고 놓고 있는 조악하고 잡스러운 신령한 현상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

여러 가지 신령한 현상들을 이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라는 것이다. 신령한 것에도 레벨이 있다.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너희의 신령한 수준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3절 말씀이 신령한 것과 신령한 척 하는 것의 분별을 위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이만희는 교묘히 3절을 비켜갈려고 속이지만, CBS 다큐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사람의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는 세례가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뜻.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

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4절 이후부터 14장까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신령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시는 선물들이라는 것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은사(spiritual gift)라고 한다.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죄씻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한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통한 교제, 그로 인한 영적인 유익들이 곧 신령한 것들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것을 흉내내서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려하는 자들이 곧 마귀와 그 종개들인 귀신들이며 그들이 일으키는 유치하고 조악한 마귀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규정한다. 즉 신령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다는 뜻으로 '미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양육 제목: 양육 쇼크 말씀: 잠언 23장 12-21절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 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3:12-21)

*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22:15)

훈계에 착심하면서 특히 훈계를 통해서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우리는 훈육이라고 한다. 훈육은 7세 이전에 가장 효과적이고, 13세까지도 대단히 유의하며 그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코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훈육이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경계를 정해 주고, 만약 그것을 하려고 시도할 경우 말로나, 표정으로나, 행동으로나,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평생을 통해서 한두번 시도를 해 볼지 모르나, 그 결과를 정해 주는 지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코칭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코칭이 불가능한 사람은 오직 사랑의 방법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다.

아버지가 하는 성경이야기와 성경공부가 가장 우선적이며 효과적인 훈육이고, 두 번째가 어머니가 하는 성경이야기와 성경공부,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를 통한 성경이야기와 성경공부이다.

교회를 통한 성경이야기와 성경공부의 진수는 역시 성직자들을 통한 성경공부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성도들 끼리의 성경공부가 좋다. 절대 이단에는 가지 말라! (마약을 드시는 거임!)

성경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상상력을 키우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며, 자신의 존재 근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신령한 것과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 등이 이루어진다.

기타 수학적 능력, 문학적 능력 등은 학교를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런 수학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학생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양육쇼크라는 책에서는(포 브론슨, 애슐리 메리먼 저) 양육을 칭찬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라고 요구한다.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안된다.

-노력에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다는 지식이 있는 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해 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지식이 있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이 들면 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자녀를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부모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꼴이다. 자녀는 결국 스스로가 부모보다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노력 그룹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였고, 쉬운 문제는 30% 더 잘 풀었다.

-똑똑한 그룹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으려 하였고, 쉬운 문제는 20% 더 못 풀었다. 결국 사전 지식이 어떠한냐에 따라서 능력은 차이가 났다.

-사람은 도전적인 존재이고, 사람의 두뇌는 도전할 때 새로운 뉴런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더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게 된다는 교육을 50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 그룹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다. 즉, 두뇌 또한 하나의 근육에 불과해서 쓰면 쓸수록 자란다는 지식을 심어줌.

-결국 어떤 건강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양육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결국 칭찬은 인사말에 불과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돕는 것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라는 것. 똑똑한 아이라는 자긍심은 학업 성취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 원래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진정한 칭찬이란 구체성과 진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성이 없으면 효과도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12세 정도가 되면, 구체성과 진정성이 없는 칭찬을 격려로 해석하였다. 즉, 너는 뒤쳐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칭찬(격려)을 받는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칭찬받는 아이는 사실 칭찬에 과묵히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 된다.

(심지어)

-스스로가 똑똑하다는 자긍심이 있는 아이는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가면서 쉽게 포기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도전한다는 점. 즉,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준을 가늠하고 그 이상을 도전하지 않게 된다는 점.

-성경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보고라 할 수 있다. 완벽한 통전적 영양식이다. 이 지식이 미리 주어진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인 셈. 양육의 측면에서.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보다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라. 암기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앵무새가 되던지 사전이 된다. 창의력을 칭찬받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사람이 된다.

